

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권영주
하트 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디기탈리스(digitalis)가 있는 화원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디기탈리스 제제는 본인도 40년간 사용해온 심장 약으로 심부전증, 부정맥 등에 사용되어 왔다.

아름다운 화원에 군집으로 피어나는 디기탈리스 꽃들을 보니 아름답기에 앞에서 반가움이 밀려온다. 자주색의 종모양의 꽃들이 주르륵 달려있고 꽃 안쪽에는 반점들이 찍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타 꽃 색깔이 있으며 화려하나 단아하다.

디기탈리스 잎에서 추출한 것은 심장약물로 사용되어 왔고, digoxin 성분은 정제와 주사용이 있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처방 하에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화원에 군집으로 모여 있는 아름다운 그 자태는 관상용으로도 어울린다.

한 여름에 접어들면서 화원속의 꽃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족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마음까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 아닐까?







튤립과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4월, 5월 봄철이면 전국 여러
곳에서 튤립의 축제가 열린다.
튤립 구근을 수백만내지 천만송이까지 수입해와

겨울에 심어 봄철에 꽃피우는 정성을 드려 갖가
지 아름다운 색깔의 튤립을 심어보는 이 들의 가
슴을 감동시킨다. 튤립 한 가닥도 그 귀한 자태
와 아름다운 색으로 감동의 마음이 솟구친다. 수
만 수십만 송이를 모아 아름다움을 연출시키니



모두들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여 감탄의 마음을 열게 한다. 옛날엔 튜립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거품의 열풍이 생길만큼 귀하고 아름다움이 있었겠으나 인간의 알팍한 바보스러운 탐욕의 재물 속에 희생 되었을 것이다. 진리는 시간이

해결 해줄 뿐이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일 뿐 본성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품위가 있는 튜립을 위해 마음을 열면서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인간의 힘든 정성과 노력이 뒤따랐다는 것을 누구는 알 것이다.